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羅 鍾 男*

1. 들어가는 글
2. 위기의 한국군과 재편성 논의
3. 전시 한국군 재편성(Making a Better Army)
4. 전시 한국군 증강(Making a Bigger Army)
5. 맺 음 말

1. 들어가는 글

한국군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이후 약 37개월간 지속된 한국전쟁 기간 중 제1년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¹⁾ 한국군의 시련은 중공군의 참전한 1950년 10월 이후 극에 달했는데, 1951년 5월에는 국군 제3군단

이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아 붕괴됨으로써 유엔군 전선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전쟁 제1년차에 위기에 처한 한국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개전 초기에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부터 중공군의 집중 공격이 가해지던 1951년 초까지 한국군 수뇌부는 어려운 전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는데, 북한군을 상대하던 1950년 9월까지의 재편성은 대체로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공군 참전 이후에 실시된 재편성 노력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며, 그 결과 1951년 초에 한국군은 전장(戰場)의 유일한 피해자로 전락하였고, 심지어 일부 부대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1951년 3월에 작성된 미 8군 사령부의 전투관찰 보고서는 '과연 한국군이 중공군에 대한 공포와 공황(恐慌, the Chinese Neurosis)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할 정도였다.²⁾

그러던 중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논의가 시작되었던 1951년 7월부터 유엔군 사령부 주관 하에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재편성이 시작되었다. 유엔군 전선의 절반을 담당하던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 없이는 미군의 전쟁 수행 부담이 끝없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시작된 한국군 재편성 과정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1952년 5월부터 시작된 한국군 증강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던 재편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약 2년여에 걸친 재편성 및 증강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하여 전쟁 제1년차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한국 육군은 물리적·심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군대(a new army)'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육군

* 육군사관학교 교수

1)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과 '한국 육군' 혹은 '국군'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는데, 논의의 범위와 성격상 모두 '육군'에 한정됨을 밝혀둔다.

2) Far Eastern Command, *Report of Army Field Observations* (March 1951), pp. 7-8. U. 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hereafter USAMHI).

이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믿음직한 군대(a reliable military)'³⁾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미 8군 사령관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육군을 상대로 추진한 두 가지 프로그램, 즉 재편성 프로그램과 증강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인한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군과 미군은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 향상과 강한 군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한국군(a new ROK Army)'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방 직후 시작된 한국군의 창군 과정, 초기 성장, 그리고 개전 초기의 전투수행에 집중되었다. 특히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시까지 미국의 한반도 소외정책으로 인해 장비와 훈련이 부족했던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개전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냉전사적 접근⁴⁾과 KMAC에 의한 한국군 창군 및 초기 발전과정을 자세하게 다룬 군사사적(cross-military cultural) 접근이 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른 시기에 비해서 비교적 가용한 사료가 풍부한 한국전쟁 제2, 3년차에 대해서는 일부 단편적인 주제들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연구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말에 KMAC의

3) Ridgway, Interview Manuscript, "Troop Leadership At The Operational Level: The Eighth Army In Korea," by General Walker Fl Winton, Jr., p. 2, Clay and Joan Blair Collection, Box 62, USAMHI.

4) Nam-Sung Huh, "The Quest for a Bulwark of Anti-communism: The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Officer Corps and Its Political Socialization 1945-1950"(Ph.D. diss., Ohio State University, 1987); Young-woo Lee,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45-1950"(Ph.D. diss., Duke University, 1984); To-woong Chung, "The Role of the U.S. Occupation in the Creation of South Korean Armed Forces, 1945-1950"(Ph.D. diss., Kansas State University, 1985).

5)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55).

관점에서 전시 한국군의 증강 및 재편성을 다룬 미군 보고서 형태의 연구들이 고작이었다.⁶⁾ 최근에 와서야 온창일, 박일송 등이 '소규모의 보잘 것 없던 한국군'이 3년간의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현대전을 치룰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로 발전하는 과정, 의의 및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내놓으면서 이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시작된 듯하다.⁷⁾

한국전쟁 중 한국군의 재편성과 증강을 통한 발전과정에 대해서 다룬 본 논문은 1951년 6월 이후 밴 플리트 사령관이 주도한 한국 육군의 재편성 과정과, 1952년 5월 이후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주도한 한국군 증강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⁸⁾ 특히 본 논문은 한국전쟁 제1년차

6) Alfred H. Hausrath, *The KMAC Advisor: Role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dvisor in Developing an Indigenous Army for Combat Operations in Korea* (Chevy Chas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7); David C. Skaggs and Richard P. Weinert,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51-1965*, (Draft Manuscript, RG 319, Military History Section, "KMAC in Peace and War," Box 1, National Archives, College Park, Maryland. [hereafter RG No., Title, Box No., NA.]; Kenneth W. Myers, *KMAC's Wartime Experience: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 RG 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 12-13, NA.

7) 온창일, "6·25전쟁과 한국군의 팽창,"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55~90;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Vol. 2(2002. 12), pp. 3~53; Il-Song Park, "The Dragon From the Stream: The ROK Army in Transition and the Korean War, 1950-1953"(Ph. D. diss., Ohio State University, 2002).

8)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재편성 과정에서 학교 교육 시스템, 화력 증강, 장교단 교육 등 거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미국 육군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였음은 물론, 미국 육군의 교육 및 훈련 체계, 전술 및 교리, 전문화 등을 배웠다는 측면에서 Americanization을 그 이론적 틀(frame)로 제시한다. Americanization을 학문, 경제, 문화, 기술 등에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Emily S. Rosenberg, *Spreading the American Dream: American Economic and Cultural Expansion, 1890-1945* (New York: Hill and Wang, 1982)와 Heide Fehrenbach and Uta G. Poiger eds., *Transactions, Transgressions, Transformations: American Culture in Western Europe and Japan* (New York: Berghahn Books, 2000) 등이 있으며, Americanization을 군대에 적용한 연구로는 Maria Hohn, *GIs and Fräuleins: The German-American Encounter in*

에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심각한 심리적·물리적 타격을 입었던 한국군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냉전의 군대(a Cold War Army)' 혹은 '자유 민주주의의 보루(a bulwark of liberal democracy)'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현대(現代) 한국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위기의 한국군과 재편성 논의

한국군의 군사적 약점이 가장 많이 노출된 시기는 중공군의 제1차 공세가 시작되었던 1950년 10월부터 제5차 공세가 완료된 1951년 5월말까지였다. 이 시기에 유엔군 전선의 한 축을 이루며 북진하던 한국군 부대들은 중공군의 우선 공격목표로 선정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⁹⁾ 특히 전선이 청천강에서부터 한강으로까지 이동하였던 1950년 11월말부터 1951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한국군은 이렇다 할 방어작전을 펼치지 못하고 유엔군 전선을 따라 후퇴만 반복하였다. 중공군 참전 이후 전세가 역전된 이후 곤혹스러웠던 것은 유엔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0년 12월에 매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이 신임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였으나, 불과 10일 후에 개시된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의해서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서울마저 내주고 37도선까지 밀려났다. 중공군의 공세가 지속되자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포함한 전체 유엔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¹⁰⁾

그러나 신임 리지웨이 사령관은 중공군 참전 이후 수세로 일관하던 유엔군 전체에 자신감과 전투 의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Why We Are Here!"라는 자신의 결의가 반영된 훈시문을 하달하고, '더 이상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¹¹⁾ 그리고 1951년 1월 말에 대규모 위력수색 작전으로 추진한 Operation Wolfhound를 시작으로 이후 약 5개월 동안 리지웨이 사령관의 지휘 아래 전열을 가다듬은 유엔군은 공산군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국 병참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지속적인 전투수행에 문제점을 드러낸 중공군은 유엔군에 점차 밀려서 1951년 3월 말에는 서울을 포기하였다. 이후 유엔군은 Killer, Ripper, Thunderbolt 등의 작전을 추진하면서 다시 38도선을 회복하였다. 5개월 만에 전세가 다시 역전된 것이다.¹²⁾

1951년 4월과 5월에 개시된 두 차례의 춘계공세에서 중공군은 최대 약 700,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다. 이에 맞선 유엔군은 공산군의 절반 정도인 약 340,000여명의 병력만으로 맞섰으며, 공산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전선을 점차 북쪽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캔자스(Kansas) 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¹³⁾ 1951년 초에 중공군과 미군 사이의 대결을 자세하게 관찰한 정일권 참모총장은 기술과 화력을 바탕으로 한 미군과 우세한 병력을 바탕으로 한 중공군의 대결에서 현대전쟁

1950s West German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2); Virginia M. Bouvier, ed., *The Globalization of U.S.-Latin American Relations: Democracy, Intervention, and Human Rights* (Westport: Praeger, 2002) 등이 있다.

9)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87; Bin Yu, "What China Learned from Its 'Forgotten War' in Korea," in *Mao's General Remember Korea* (trans. and ed. Xiaobing Li et. al.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14-16.

10) James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298-300.

11) Lt. General M. B. Ridgway, "Why We Are Here," 21 January 1951, Ridgway Papers, Box 17, USAMHI.

12) 온창일, 『한민족전쟁사』(서울: 집문당, 2001), 623-40;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338.

13) 정일권, 『정일권회고록: 6·25 비록-전쟁과 휴전』(서울: 동아일보사, 1986), 280(이하 『전쟁과 휴전』: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640.

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¹⁴⁾ 정일권 참모총장이 평가한 대로, 미군과 중공군은 서로에 대해서 각각의 장점을 살려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였으나,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이 몇 차례 반복되었던 1951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전장의 유일한 피해자는 한국군이었다.¹⁵⁾ 1950년 12월 이후에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병참지원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한국군은 여전히 소총, 수류탄, 지뢰 등 기본적인 전투물자를 포함하여 절대적인 병참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교와 병사의 약 80%가 정규훈련을 받지 않은 인원들이어서, 한국군 지휘관들은 정상적인 작전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¹⁶⁾ 훈련이 안된 병력들을 지휘하는 한국군 지휘관들은 부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군이 다가오기 이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¹⁷⁾ 그러나 한국군 부대들의 조기 철수는 인접하는 미군 부대와 유엔군 전선 전체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왔다. 이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한 한국군 부대들의 조기 철수나 붕괴는 부대원 전체가 희생하는 순간까지 인접 부대의 철수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던 영국군의 설마리 전투와 네덜란드 군의 횡성전투 등과 비교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리지웨이 사령관을 포함한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군을 재편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한국군 장교단 및 간부들의 리더십 부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였다.¹⁸⁾ 1951

14) 정일권, 『전쟁과 휴전』, 307-09.

15) 정일권, 『전쟁과 휴전』, 315-18.

16) 김행복, 『한국전쟁의 전쟁지도: 한국군 및 UN군 편』(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450.

17) 장도영, 『장도영 회고록: 망향』(서울: 도서출판 숲속의 꿈, 2001), 215(이하 『망향』).

1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hereafter *FRUS*]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Vol. 7: *Korea and China, 1951, Part I*, p. 419; From Major General(USAR) Frank E. Lowe to President Harry S. Truman, 8 January 1951, Frank E. Lowe Papers, Box 1, USAMHI.

년 3월에 8군 사령부의 전투 관찰단(Combat Observation Team)이 국군 제3군단의 전투를 관찰한 후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군 지휘관들이 “부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¹⁹⁾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들에게 “강한 전투의지의 근원인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²⁰⁾ 그 결과 한국군 부대들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한국군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한 채 매번 공포와 공황에 빠져 스스로 붕괴하였던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²¹⁾

중공군 참전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한국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사건은 1951년 5월 중순에 동부전선의 현리 북방에서 국군 제3군단 전체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붕괴한 사건이었다. 개전 이래 단일 전투에서 가장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전투에서 한국군은 3개 사단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 지역에서 유엔군의 전선이 20km나 남하하였다.²²⁾ 붕괴된 전선을 막아내기 위한 미군 제10군단의 필사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마저 고립되어 어려움에 처할 뻔하였다. 현리전투의 치욕스런 패배 직후 제3군단은 해체되었으며, 태백산맥 동쪽의 제1군단을 제외한 모든 전투일선에서 한국군 부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후방으로 밀려난 것인데, 한국군 지휘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투부대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곤혹스러워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 지휘관들로부터 ‘싸울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더 이상

19) Far Eastern Command, *Report of Army Field Observations* (March 1951), pp. 7-8, USAMHI.

20) Ridgway to Hull, 23 July 1951, Ridgway Papers, Box 20.

21) John E. Wiltz, “The MacArthur Hearings of 1951: The Secret Testimony,” *Military Affairs* 39 (December 1975): 169, footnote no. 40.

22) 백선엽, 『6·25 한국전쟁 회고록: 군과 나』(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89), 192-93(이하 『군과 나』); 유재홍, 『격동의 세월』(서울: 을유문화사, 1994), 234-40(이하 『격동의 세월』);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632-34.

일선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치욕적인 최후통첩을 받아야 했다.²³⁾ 뿐만 아니라 이 패배가 계기가 되어 한국군에게 대한 미군의 군수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군의 병참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또한 국방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경질되는 등 극단적인 파장이 뒤따랐다.²⁴⁾

흥미로운 사실은 1951년 5월의 현리전투를 계기로 한국군 재편성을 둘러싼 한국정부와 유엔군 사령부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이다. 전선에서 드러난 한국군의 나약한 전투력은 한국군과 한국정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군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엔군 전선의 절반을 담당하던 한국군 부대들의 전투력 회복 없이는 유엔군 전체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에 대한 재편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한국군의 재편성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것이 문제였다. 한국정부는 무기, 장비 및 인력부족을 한국군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미국이 당장 한국군의 인원과 규모를 증강시키고, 이들에 대해 충분한 무기와 보급 지원을 증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에게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리지웨이 사령관은 한국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하는 해법, 즉 단순한 한국군의 규모 증강과 미국의 대한국 군사원조 증강이 한국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²⁶⁾ 그는 1951년 초에

23) 백선엽, 『군과 나』, 199.

24) "Statement by President Syngman Rhee," 24 March 1951, Ridgway Papers, Box 20.

25) Ridgway to Collins and JCS, 10 May 1951; Omar N. Bradley, Chairman, JCS,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 Subject: President's Rhee's (Republic of Korea) Statement," 23 May 1951, Record Group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31,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aryland (hereafter RG No., Title, Box No., NA.).

26) Ridgway to Collins and JCS, 10 May 1951,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한국군의 전투를 관측하고 작성한 미군의 보고서들을 인용하면서, 한국군의 문제가 단순히 인원과 무기의 부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리더십의 결여와 훈련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이처럼 한국군의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와 유엔군 지휘부 사이의 이견(異見)은 점차 미묘한 갈등으로 발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증강과 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리지웨이 사령관을 상대하지 않고 직접 워싱턴의 미국정부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 하였다. 또한 AP등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언론을 상대로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²⁸⁾ 이에 대해서 리지웨이 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고집불통'이라고 비난하며, 한국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 증강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²⁹⁾

그러던 와중에 국군 제3군단의 대패(大敗)로 끝난 현리전투는 본인의 의지로 한국의 증강과 재편성을 이루려던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전투력은 전혀 향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전 이후 가장 최악의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군 3군단의 패배로 인해서 1951년 6월 이후 진행된 한국군 재편성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입지는 제한되었고, 대신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군 재편성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중공군에게 큰 패배를 당한 이후 자신감을 잃은 한국군의 근본적인 문제

Box 31, NA; Ridgway to the Army, "Personal for General Haislip," 25 May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 1951-52, Box 641, NA.

27) Ridgway to the Army, "Personal for General Haislip," 25 May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 1951-52, Box 641, NA.

28) Ridgway to Collins and JCS, 20 May 1951; Ridgway, Interview Manuscript, "Troop Leadership At The Operational Level: The Eighth Army In Korea," by General Walker Fl Winton, Jr., p. 2, Clay and Joan Blair Collection, Box 62, USAMHI.

29) *ibid.*

가 무엇(what)이며, 한국군의 재편성을 누가(who)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되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과정(how)을 통해서 한국군을 재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관심이 전환되었다. 이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해결한 사람은 1951년 3월에 리지웨이 사령관의 후임으로 제8군 사령관에 취임한 제임스 밴 플리트 중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맹장이자, 1948년부터는 공산주의 게릴라들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그리스에서 미국 군사고문단을 지휘하여, 그리스 육군을 공산게릴라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킨 밴 플리트의 등장은 한국군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³⁰⁾ 그는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 육군을 대규모로 증강시켰고, 미국의 對그리스 군사원조를 증가시켰으며, 미국 군사고문단을 활용하여 그리스 육군의 교육훈련 수준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밴 플리트 장군이 육성하고 훈련시킨 그리스 육군이 그리스 북부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공산 게릴라들을 완전하게 소탕할 수 있었다.³¹⁾

밴 플리트의 진가는 그가 한국군의 문제점에 대해 내린 최초의 진단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밴 플리트는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군 재편성 문제에 대하여 전임자인 리지웨이와 전혀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리지웨이는 한국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장교단의 리더십 결함을 지적하였는데,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충성심과 전문성을 겸비한 장교단을 갖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군이 믿음직스럽고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장교단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투 효율성 향상 등 현재

30) Paul F. Braim, *The Will to Win: The Life of General James A. Van Fleet*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01); Raymond E. Bell Jr., "A General for the 'Tough Hombres'," *World War II* (September 2004): 24, 80.

31) Eric Downton, "Van Fleet Put His Greek Battle Training to Work," *Look Reports* (September 1951); Lindesay Parrott, "South Korean Troops Improved in Combat," *The New York Times*, 18 October 1952, James A. Van Fleet Papers, S-24, George C. Marshall Library, Lexington, Virginia. On Van Fleet's achievement at Greece, see Braim, *The Will to Win*, 152-221.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어 한국군을 괴롭힐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³²⁾

하지만 밴 플리트는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증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리지웨이가 주장하는 장교단의 부실과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는 한국군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군에 대한 패배로 인해서 내외부적으로 수많은 비난에 직면한 한국군과 한국군 지휘관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드러내야 했다.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두드러진 발전을 이뤄야 만, 비로소 한국군의 자신감이 회복될 것이고, 자신감이 회복된 다음에 장교와 지휘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리더십을 겸비한 훌륭한 전문 직업군 장교단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실 중국군이 참전한 1950년 10월 이후 1951년 초까지 전장에서 드러난 한국군의 문제점을 분석한 KMAG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한국군은 장교단의 리더십 부재뿐만 아니라, 심각한 훈련 부족, 무기와 장비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특히 군대 전체에 걸쳐있는 자신감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³³⁾ 한국전쟁 내내 한국군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KMAG의 분석을 신뢰한 밴 플리트 사령관은 한국군이 실추된 자신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군대로써 갖추어야 할 전투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재편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³⁴⁾

그 결과 한국에 부임한 지 약 3개월 동안 한국군을 정밀하게 관찰한 후

32) Ridgway to the Department of Army for Hull, 5 May 1951,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31, NA.

33) CG EUSAK to CINCFE, "Personal for Hicky from Van Fleet," 20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 1951, Box 41, NA.

34) Ibid; Van Fleet to Collins, 13 June 1951; Collins to Van Fleet, 17 July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벤 플리트는 1951년 7월에 한국군 재편성 계획을 미국 육군성에 제출하였다. 벤 플리트가 제출한 한국군 재편성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한국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한 것이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 체계 마련 등 한국군의 전체적인 훈련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사단급 부대에 이르기까지 각급 부대의 야전 훈련(field training)을 강화하는 것이며, ... 마지막으로, 이상의 두 가지 훈련을 바탕으로 실제로 전선에서 각 부대가 전투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 학교 교육 시스템은 현재에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관장할 기구를 발족시켜 이를 더욱 보장될 것이다. ... 현재 한국군의 모든 사단들에게 각 부대별로 최소한 60일 정도의 훈련 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³⁵⁾

벤 플리트 사령관이 한국군 재편성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요소는 그가 그리스 육군을 훈련시켰던 경험이었으며, 두 번째 요소는 그동안 5년 이상 한국군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KMAC의 축적된 노하우였다.³⁶⁾ 벤 플리트가 한국군의 재편성 과정에서 강조한 학교 교육 시스템 강화와 각급 부대들에 대한 야전 훈련의 강화는 그가 그리스 육군에 적용하였던 것들이다.³⁷⁾

벤 플리트 사령관의 한국군 재편성 계획은 미국 국방부와 육군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미국 외교정책의 추진방향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고민하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한국군의 성공적인 재편성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새로운 냉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즉, 만약 한국군이 한국전선에서 자립적으로 공산군과 대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강화될 수 있다면,

미군을 포함 한 유엔군은 다른 전선에서 공산군에게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참모총장과 페이스(Frank Pace, Jr.) 육군성 장관은 벤 플리트가 제출한 한국군 재편성 계획을 적극 환영하였으며, 벤 플리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³⁸⁾

하지만 벤 플리트 사령관의 한국군 재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 지휘관들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만약 전선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벤 플리트 사령관이 제시하는 한국군 재편성 계획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군 지휘관들이 벤 플리트 개인과 미군 전체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흥미롭다. 이들은 전임 8군 사령관인 워커나 리지웨이와 달리 벤 플리트를 잘 따랐으며,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상의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군 지휘관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벤 플리트 사령관의 개인적 성향에 의한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 한국군 지휘관들이 전체적으로 미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 제1년차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오래전에 일본군이나 중국군에서 배운 오래된 군사지식만으로는 중공군과 같은 막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군이 어떻게 중공군을 상대하고 있는가를 여러 차례 보아 왔던 터라, 한국군이 재편성을 통해서 미군과 같은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는 군대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 지휘관들은 벤 플리트 장군의 재편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이 재편성 프로그램이 한국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³⁹⁾

35) Van Fleet to Collins, 13 June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36) Braim, *The Will to Win*, 245-47.

37) Van Fleet to Collins, 13 June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38)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9), 314-18.

39) Van Fleet to John J. Muccio, Ambassador of the U.S. to the ROK, 2 May 1951:

벤 플리트 사령관의 한국군 재편성 계획을 후원한 또 다른 세력은 오랫동안 한국군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KMAG이었다. KMAG은 벤 플리트가 한국에 부임하기 오래전인 1950년 12월부터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증강시키기 위한 일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었다.⁴⁰⁾ 뿐만 아니라 KMAG은 벤 플리트가 한국군 재편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을 때, 그동안 한국군을 편성하고 훈련시키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벤 플리트를 보좌하였다. 벤 플리트는 자신이 계획한 방향으로 한국군 재편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KMAG의 확장과 유능한 고문관들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육군성에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 결과 KMAG 고문관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51년 7월에는 무려 1,300여명 정도가 고문관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개전 초기에 비해서 무려 4배나 증가한 숫자이다.⁴¹⁾

그러나 위기에 처한 한국군의 재편성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요소는 벤 플리트 자신의 강한 신념과 추진력이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과 한국군 지휘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선의 한국군 부대를 방문하였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국군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고 노력하였다. 벤 플리트는 매번 자신의 방문에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동행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한국군 지휘관과 병사들의 사정을 직접 듣고

W. M. Hodge, Major General, Commanding General, the 9th U.S. Army Corps, to Van Fleet, 28 April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Chang, Doyoung, Commanding General, 6th ROK Army Division, to Van Fleet, 25 November 1951; 15 July 1952, Van Fleet Paper, Box 73.

40)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55), 141-51.

41)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161.

이해하려고 노력한 벤 플리트의 노력은 성공하여,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한국군의 지휘관과 병사들이 그를 환영하였다. 한국군 부대들에 대한 잦은 방문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의 빈번한 접촉 등은 그가 그리스에서 비슷한 임무를 추진하면서 이미 큰 효과를 얻었던 것들이었다.⁴²⁾ 결국 벤 플리트 장군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한국군은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완벽한 모습으로 전선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벤 플리트 사령관을 “현대 한국군의 아버지(the father of the modern ROK army)”로 칭송하게 되었다.⁴³⁾

3. 전시 한국군 재편성(Making a Better Army)

벤 플리트는 자신이 구상했던 한국군 재편성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인 한국군의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한국군의 학교 교육 및 훈련 체계를 보강하였다.⁴⁴⁾ 한국군은 1947년 이래 KMAG의 지도하에 미국 육군의 학교교육 시스템을 본뜬 일부 학교와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이 발발하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다. 1951년 1월에야 비로소 KMAG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부 학교들이 부활하였으나,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⁴⁵⁾ 1951년 5월의 한국군 학교교육 및 훈련 시스템

42) Braim, *The Will to Win*, 272-78; Eric Downton, “Van Fleet Put His Greek Battle Training to Work,” *Look Reports* (11 September 1951), Van Fleet Papers, Box S-24.

43) Syngman Rhee’s address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28 July 1954: “ROK Army Comes of Age as a New Division Is Born,” *New York Well Telegram*, 24 November 1952, Van Fleet Papers, Box S-24.

44) Braim, *The Will to Win*, 273; Van Fleet to Collins, 13 June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CG EUSAK ADV to CINCFE, “Personal for Hickey from Van Fleet,” 20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41, NA.

을 분석한 KMAG의 보고서에 따르면, 12개의 병과학교와 2개의 훈련소가 존재했으나 이들은 어느 누구의 종합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KMAG 고문관들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고 있었다. 그 결과 병과학교들이 독자적으로 장교 양성과정, 기초 군사반(OBC) 및 고등 군사반(OAC) 과정을 운영하였으나, 각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하여 각 학교별, 교육과정별 교육 시스템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⁴⁶⁾ 또한 한국군의 유일한 신병 훈련소인 제주도 육군 훈련소는 넘쳐나는 신병을 교육시키기에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였다. 또한 운전병 훈련과정과 같은 특수과정의 신설로 인해서 제주도 육군훈련소의 임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⁴⁷⁾ 이 외에도 유능한 강사의 부족, 훈련 장비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이 훈련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⁴⁸⁾

벤 플리트 사령관은 한국군 전체의 학교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부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951년 8월에 대구에 한국군의 모든 교육훈련 체계를 관장할 기구인 교육사령부(the Replacement Training and School Command)를 출범시켰다. 교육사령부는 당시에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45) Kenneth W.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 RG 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 12-13, NA., pp. 125-26;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141-48.

46)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26; KMAG to Secretary of the Army, "Korean Army Training Program," 11 April 1951; G-3 to Chief, KMAG, "Advisors to Korean Army Training Installations," 26 Februar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47) Chief, KMAG, to Senior Advisor, The Leaders School, "Inactivation of The Leaders School," 31 Ma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41, NA; G-1 Advisor to G-3 Advisor, "Replacement," 29 April 1951; G-3 Advisor to Chief, KMAG, "Increased Output 1st RTC," 26 July 1951; Chief, KMAG, to Commanding General, EUSAK, "Replacement Training, ROKA," 29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48)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27.

12개의 병과학교와 2개의 신병 교육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명실 공히 한국군 전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임무를 담당하였다.⁴⁹⁾ 교육사령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그동안 각 병과학교별로 진행되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임관 교육, 기초 교육, 보수 교육이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사령부에서는 각 학교에서 사용할 훈련 교재와 교범을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각급 부대들에 적용할 표준 전술과 교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⁵⁰⁾

그러나 벤 플리트와 KMAG은 각 학교별가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서 교육사령부에 의한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과 감독이 어렵다는 것과, 이들 학교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 행정 시스템 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면밀한 검토 후에, KMAG은 만약 한국군의 모든 학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사령부 아래 통제되어 있다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⁵¹⁾ KMAG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벤 플리트 사령관은 한국군 지도부의 협조를 얻어 교육사령부를 대구에서 광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새롭게 광주에 자리를 잡은 교육사령부에는 보병학교, 포병학교, 통신학교가 주축을 이뤄 1951년 11월까지 우선적으로 옮겨와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제 위치에서 육군본부의 통제를 받았다. 광주로 새로 옮겨온 교육사령부는 1952년 1월 6일에 육군 교육훈련센터(the Korean Army Training Center)로 개편되었다.⁵²⁾

49) G-3 to Chief of Staff, KMAG, "Replacement and School System," 3 August 1951; Chief, KMAG, to Brigadier General Arthur S. Champany, Deputy Chief of KMAG, "Activation of the Replacement-Training and School System," 6 August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3, NA.

50) Major Lyle E. Widdowson to Senior Advisor, RTSC, "Programs of Instruction and Weekly Training Schedules," 18 October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3, NA.

51) KMAG G-3, General Reference Files, no date, quote from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28-29.

52)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29-30;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표 1> 상무대(Kwang-ju Military Post)⁵³⁾

학교	교육과정	규모 (명)	교육기간 (주)	총 가용 학생 수
보병 학교	고등군사반(Advanced Officers Course)	120	14	4,080
	기초군사반(Basic Officers Course)	600	14	
	장교 양성과정(Officer Candidate School, BI)	1,250	10	
	장교 양성과정(Officer Candidate School, BM)	1,050	14	
	기갑과정(Tank Course)	1,062	11	
포병 학교	고등군사반(Advanced Officers Course)	30	10	2,010
	기초군사반(Basic Officers Course)	40	8	
	장교 양성과정(Officer Candidate School)	360	14	
	차량 수리과정(Motor Maintenance)	100	10	
	FDC and Survey	50	4	
	통신 특기과정(Communication Specialists)	30	6	
	병 양성과정Enlisted (BM)	1,400	8	
통신 학교	장교 양성과정(Officer Candidate School)	40	14	1,210
	기초군사반(Officers Basic Course)	35	10	
	교환병 양성과정(Radio Operator, CW)	500	16	
	교환병 양성과정(Radio Operator, Voice)	100	6	
	기기 수리과정(Radio Repair)	100	16	
	야전 가설과정(Field Lineman)	150	8	
	교환수 양성과정(Switchboard Operator)	50	5	
	통신 보급과정(Signal Supply)	50	6	
	통신 수리과정(Telephone Repair)	50	8	
	서신 종합과정(Message Center)	100	8	
유선 종합과정(Wire chief)	35	13		
연간 총 교육가능 인원				7,300

178-79: *Addenda*, Van Fleet Papers, Box 89.

53) "Brochure of ROKA Training,"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25 November 1951, RG 338,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Classified Organization Files, Box 85, NA.

육군 교육훈련센터는 장차 강한 군대로 성장할 한국군의 요람이자 상징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상무대(尙武臺)'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⁵⁴⁾ 훗날 많은 한국군 지휘관들이 회상하듯이, 상무대의 개소야말로 '신(新) 한국군(a new ROK army)'을 건설하기 위한 모든 장병의 노력이 결집된 결과였다. 또한 과거의 악몽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던 한국군 전체에게 있어서 상무대는 중공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교리를 공부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의 도장(道場)이었다.⁵⁵⁾ 육군 교육훈련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한국군은 지난날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육군 교육훈련센터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신병 교육체계의 발전이었다. 과거 제주도 육군 훈련소에 의존하던 신병 훈련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던 벤 플리트 사령관과 KMAG은 1951년 11월에 또 다른 신병 훈련소를 논산에 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육군 제2훈련소로 불릴 이 새로운 훈련소의 임무는 장차 증가할 신병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여, 제한된 시설과 인력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도의 제1훈련소의 임무를 해소하는 것이었다.⁵⁶⁾

논산에 육군 제2훈련소가 개소하던 1951년 11월 이전까지 제주도의 제1훈련소는 매우 벅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우선 육군의 각 부대에 보낼 약 14,000여명의 신병들에 대한 기초 군사 훈련을 담당했으며, 운전병 교육 등 일부 특기 교육도 병행하였다.⁵⁷⁾ 특히 1951년 7월 이후에는 신병들에

54) Colonel Albert G. Wing to Chief, KMAG, "Opening Ceremony of KATC," 16 December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41, NA.

55) 이한림, 『이한림회상록: 세기의 격랑』(서울: 팔복원, 1994), 224(이하 『세기의 격랑』).

56) "Replacement Training Center 1 & 2,"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57)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45;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148-51; *Addenda*, Van Fleet Papers, Box 89.

대한 교육훈련 기간이 처음에는 4주였다가 8주, 12주로 점차 연장됨에 따라서 한국군 유일의 훈련소로써는 훈련 시설, 인력 및 자용 교육 자재 등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많았다.⁵⁸⁾ 그러던 와중에 제2훈련소의 개소로 인하여 한국군의 신병 훈련 시스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불과 열흘 미만의 기초 군사 훈련 후에 각 부대로 신병들을 보냈던 과거와는 달리 평균 6~8주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병사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⁵⁹⁾

한국 육군의 학교교육 시스템을 육군 훈련센터 중심체제로 종합시킨 밴 플리트 사령관은 한국군 연대급 이상의 각급 부대들의 전투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하나를 제안하였다. 창군 이래 1951년 7월까지 한국군의 연대급 부대들은 훈련다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고작해야 1/3정도가 대대급 훈련을 마쳤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전쟁 1년차를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연대 및 사단급 부대들은 훈련다운 훈련을 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 부대단위 훈련 기회의 부재와 더불어 각급 부대의 군사훈련 유경험자 비율이 줄어든 것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결국 장병 개인에 대한 훈련과 부대 훈련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군 부대들에게 높은 수준의 전투력과 전투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밴 플리트 사령관은 이처럼 훈련이 부족한 한국군 부대들에게 제대별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 육군에서 적용하여 큰 효과를 얻었던 야외 훈련소(the Field Training Center, FTC)라는 부대별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⁶⁰⁾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한국군 각

58)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44-45;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148-51; *Addenda*, Van Fleet Papers, Box 89; G-3 advisor to G-1 Advisor, "Replacements" G-3 to Chief of Staff, KMAG, "Korean Army Personnel Situation," 22 May 1951; G-3 Advisor to Chief of Staff, KMAG, "Increased Output 1st RTC," 26 July 1951, RG 554, KMAG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59) Eugene R. Edwards, "Cradle of the ROK Army," *Korean Survey* 6(November 1957): 9-14, Van Fleet Papers, Box S-19.

60) Braim, *The Will to Win*, 209-10.

사단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제대별 훈련을 실시하여, 각 부대의 전투 효율성을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미 제8군 예하의 각 군단이 한국군 사단들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되, KMAG이 전체적인 훈련 일정과 진행상황을 통제하기로 하였다.⁶¹⁾ 마침내 첫 번째 야외 훈련소가 1951년 8월에 미 제1군단의 통제 하에 부평에 개소(開所)되어, 한국군 제9사단이 처음으로 입소하였다.⁶²⁾

제1야외 훈련소 개소에 즈음하여 밴 플리트 사령관은 한국군 사단이 훈련을 담당할 미군 군단장의 책임 하에 약 9주가 소요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첫 번째 주에는 부대 이동 및 훈련 준비를 위해 할당되었고, 나머지 8주는 개인훈련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부대 및 대부대 훈련으로 진행되었다.⁶³⁾ 야외 훈련소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군 군단들은 유능한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들은 훈련소에 입소한 한국군 부대들에 배치되어 각종 훈련을 감독하고, 지도하였으며, 매일매일 훈련 결과를 야외 훈련소장인 군단장에게 보고하는 등 실질적인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⁶⁴⁾ 한국군 부대의 훈련을 지원 및 지도하기 위해서 파견된 미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였고, 훈련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매일 야간에 교육훈련 결산을 통하여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할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임했다. 또한 이들은 본인들이 미국 육군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배운 내용과,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새롭게 습득한 각종 전투기술을 종합하여 교육을 준비하는 등 매우 성실하게 교관 임무를 수행하였다.⁶⁵⁾ 이들은

61) Van Fleet to Commanding General, I, IX, X U.S. Corps, "ROK Army Training Within Corps Areas," 30 September 1951, Van Fleet Papers, Box 84.

62)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33; *Addenda*, Van Fleet Papers, Box 89.

63) Van Fleet to Commanding General, I US Corps, Chief of Staff, ROK Army, Chief, KMAG, Commanding General, 9th ROK Division, "Letter of Instruction," 5 August 1951, Van Fleet Papers, Box 84.

64) Hausrath, *The KMAG Advisor*, 172-74.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는 한국군 장교 및 병사들의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에 감탄하곤 하였다.⁶⁶⁾

제1야외 훈련소가 한국군 제9사단을 성공적으로 훈련시켰다는 보고를 받은 밴 플리트 사령관은 당장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군단들에게 각각 1개씩의 야외 훈련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라고 지시하였다.⁶⁷⁾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KMAG은 밴 플리트의 지시에 따라 1951년 9월에 세 개의 야외 훈련소를 추가로 개소하였고, 각 훈련소마다 차례로 입소할 한국군 사단들을 지명하였다.⁶⁸⁾

한국군의 재편성 프로그램이 자신의 지침과 KMAG의 감독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자, 밴 플리트 사령관은 한국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자, 전쟁 제1년차에서 한국군 부대들을 가장 어렵게 하였던 '화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전쟁 제1년차에 한국군 부대들은 전차와 항공기는 물론 대구경의 포병장비조차 보유하지 않았으며, 각 사단에 105mm 곡사포 대대가 편제된 것이 고작이었다.⁶⁹⁾ 그런데 더욱 심각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미군의 포병장비 일부가 지원되었던 1951년 4월과 5월 이후에도 한국군 부대들의 화력은 크게 증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한국군 부대들이 이러한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부대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미군의 장비들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으며,

65) Ibid.
 66)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32-44.
 67) Alfred H. Hausrath, *The KMAG Advisor: Role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dvisor in Developing an Indigenous Army for Combat Operations in Korea* (Chas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7), 179-81.
 68) 한편 기존 한국군 부대들에 대한 보충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야외 훈련소는 한국군의 증강이 본격화된 1952년 6월 이후에는 신설 및 창설된 부대들에 대한 훈련 임무가 추가되어, 부대 훈련소(the Unit Training Center) 임무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69) Chief, KMAG, to Deputy Chief of Staff, EUSAK, "Memo," 25 May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표 2> 육군 야외훈련소(Field Training Center, FTC) 현황⁷⁰⁾

구 분	한국군 부대	훈 련 기 간		훈련소요 기간 (주)
		시 작	종 료	
제1 야외훈련소: 미 제1군단 예하 (부평)	9사단	1951. 8. 18	1951. 10. 12	8
	8사단	1952. 2. 18	1952. 3. 15	4
	1사단	1952. 4. 7	1952. 4. 18	2
	1사단	1952. 8. 18	1952. 9. 27	6
	수도사단	1952. 11. 3	1952. 12. 5	5
제2 야외훈련소: 국군 제1군단 예하 (양양)	3사단	1951. 9. 24	1951. 10. 18	4
	5사단	1951. 11. 1	1952. 1. 9	10
	11사단	1952. 1. 25	1952. 3. 29	9
	12사단	1952. 11. 12	1952. 12. 4	3
	15사단	1952. 12. 10	1952. 12. 31	3
	20사단	1953. 1. 2	1953. 2. 15	3.5
	21사단	1953. 3. 9	1953. 5. 9	8
제3야외 훈련소: 미 제10군단 예하 (양구)	22사단	1953. 5. 20	1953. 7. 13	7.5
	25사단	1953. 7. 13	-	-
	7사단	1951. 10. 8	1951. 11. 18	6
제4야외 훈련소: 미 제9군단예하 (사창리)	3사단	1951. 11. 27	1952. 1. 7	6
	6사단	1952. 1. 21	1952. 3. 15	8
	2사단	1952. 4. 21	1952. 6. 15	8
	8사단	1952. 10. 4	1952. 10. 17	2
	9사단	1952. 10. 27	1952. 11. 15	3
	2사단	1952. 12. 1	1952. 12. 20	3
	22사단	1953. 7. 23	-	-

1. 제2야외훈련소는 1952년 7월 1일부터 부대훈련소(the Unit Training Center, UTC)로 변경되어 신편부대 훈련을 전담하였음.
2. 제3야외훈련소는 1952년 3월에 폐지되고, 제4훈련소로 이전.
3. 제4야외훈련소는 1952년 5월 1일부로 제5연대 훈련소(Regimental Training Center, RTC)로 개편.

70)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Chapter 3, Figure 12.

있었으며, 적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경우가 허다하였다.⁷¹⁾ 밴 플리트 사령관과 KMAG은 한국군의 재편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화력증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의 화력 장비와 무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들은 한국군에게 단순히 미군의 무기 및 장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조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서 KMAG은 한국군에 포병부대와 포병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⁷²⁾

한국군의 화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밴 플리트와 KMAG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한국군의 포병화력 증강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 KMAG은 한국의 굴곡이 심하고 산악이 많은 지형에 포병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⁷³⁾ 한반도 지형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후, KMAG은 한국군에 적합한 포병 증강 계획을 제안하였는데, 이 계획은 한마디로 한국군의 전체 포병 화력에 융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화력의 집중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개발하는 것이었다.⁷⁴⁾ 이러한 개념 하에 KMAG은 우선 각 사단별로 105mm 포병 대대를 신설함과 동시에 육군 예하에 미국 보병 사단이 보유한 포병부대와 유사한

71) Major David E. Wright and Major Fred T. Shelton, Jr., "Debriefing Report," 10 September 1951; Major Eldon B. Anderson, "Debriefing Report, No. 76," 6 March 1952, RG 550, Military Historian's Officer, Organizational Files, Box 61, NA.

72) Major Lyile S. Widdowson, Adjutant General, KMAG, to Commanding General, EUSAK, "Activation and Training of Additional ROKA Artillery," no date,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8, NA.

73) Colonel C. C. B. Warden, Adjutant General, KMAG, to the Adjutant General, Department of the Army, "Revised Table of Organization and Equipment 7-ROK," 18 January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General Decimal Files, 1952, Box 124, NA.

74) Major Lyile S. Widdowson, Adjutant General, KMAG, to Commanding General, EUSAK, "Activation and Training of Additional ROKA Artillery," no date,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8, NA.

크기의, 즉 155mm 1개 대대와 105mm 6개 대대로 이루어진 포병 부대 6개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⁷⁵⁾

밴 플리트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립한 한국군에 대한 KMAG의 포병 증강 계획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간결하고 분명하였으나, 실제로 이 계획을 추진 및 실행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이 반복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록 KMAG이 한국군의 화력 증강을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포병 장비의 양을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무기들을 확보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논의들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미국 육군, 합참, 국방부의 실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힘들었다.

한국군에 포병부대를 신설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이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는 KMAG이 담당하였으나, 이 부대의 실제 편성과 훈련을 담당할 것은 바로 제8군 예하의 미군 포병부대들이었으며, 이들은 신편되는 한국군 포병부대들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실제 전장운용까지 책임져야 했다. 이를 위해서 밴 플리트 사령관은 제8군 예하의 미군 포병부대 간부들을 KMAG으로 소속을 전환하여 신편 한국군 포병부대들에 대한 관리와 훈련에 집중하도록 조치하였다. 밴 플리트 사령관과 KMAG은 이러한 모든 조치를 통하여 한국군 포병 증강계획이 원래 의도하였던 바대로 완료되어, 이 부대들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갖추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다.⁷⁶⁾

한국군의 화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밴 플리트의 계획이 반영된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한국군에 기갑부대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75)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183-84;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88; James R. Wheaton, "Korean Artillery," *Military Review* 34 (October 1954): 55; Major Lyile S. Widdowson, Adjutant General, KMAG, to Commanding General, EUSAK, "Activation and Training of Additional ROKA Artillery," no date,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8, NA.

76)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98-99.

처음부터 미군 지휘관들과 기갑 전문가들로부터 수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반대자들은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기갑부대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⁷⁷⁾ 또한 당시 미국 육군이 보유한 전체적인 기갑 장비 및 탄약의 재고 부족 때문에 밴 플리트가 추진한 한국군의 기갑 증강계획 자체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⁷⁸⁾ 뿐만 아니라 포병 증강 계획과 달리 기갑 증강계획을 한국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즉, 한국군 내부에 기갑 전문가가 전무하여 KMAG 고문관들이 한국군에 기갑 장교와 부사관들을 발굴하여 훈련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에 기갑부대들이 창설되어 각 사단에 배치되자 이들이 가져온 심리적 효과가 대단하여, 기갑부대에 의한 화력증강의 효과보다는 한국군 전체의 사기 진작에 더욱 기여하였다.⁷⁹⁾

종합하면, 1951년 밴 플리트 사령관의 지휘아래 추진된 한국군 재편성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력 중심의 전투력을 강조하는 동양적 군대(Asiatic military)에서 화력과 기동 중심의 미국식 군대(Americanized military)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육군 교육훈련 센터를 창설하여 육군 예하의 병과학교와 훈련소를 통제토록 하였으며, 한국군 각 부대에 보충할 신병들의 기초군사 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 제2훈련소를 개소하였다. 또한 KMAG과 미군 각 군단의 긴밀한 협조 아래 도입된 야외 훈련소에는 한국군 각 사단이 입소하여 약 8~9주 정도의 편제부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하여 한국군은 그동안 병사 및 장교 개인에 대한 훈련을 보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77) HQ, the Eighth U.S. Army, Commanding Reports, November 1951, RG 550,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History Files, Box 67, NA.

78) HQ, the Eighth U.S. Army, Commanding Reports, September 1952, RG 550,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History Files, Box 76, NA.

79) 백선엽, 『군과 나』, 232-35.

창군 이래 최초로 연대 및 사단 등의 대부대 훈련을 실시하여 전쟁 제1년 차에 타격을 입은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밴 플리트 사령관이 신념을 가지고 추진한 한국군의 화력 증강 프로그램은 미국 육군 내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사단급 부대들에 포병과 기갑부대를 신설하여 편제 부대의 화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곧 각 부대의 전투 효율성 증가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인력(manpower) 중심의 전투력을 행사하던 한국군이 1952년 이후 점차 화력(firepower) 중심의 전투력을 행사하는 군대로 변화하는 등 한국군의 근본적인 체질이 변화하였다.

전선 인근의 훈련소와 각급 학교기관들에서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증강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던 와중에 밴 플리트 사령관과 KMAG은 한국군의 주축인 장교단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전문 직업적 장교단'의 육성이 급선무라고 판단하면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함께 진행중이던 다른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밴 플리트가 미국 육군 참모총장인 콜린스 장군에게 쓴 편지에서 밝혔듯이, "...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장교단의 낮은 훈련 수준과 형편없는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어떤 군대에 새로운 장교단을 육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⁸⁰⁾ 이러한 개념 하에 밴 플리트는 한국군 장교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군 장교들을 미국 육군의 병과학교에 위탁교육 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군의 장교 육성 및 교육에 주축이 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이었다.

한국군 장교들을 선발하여 미국 육군의 병과학교에서 위탁교육 시키겠다

80) Van Fleet to Collins, 8 September 1951, Van Fleet Papers, Box 73.

는 발상은 이미 1948년부터 제기되어, 일부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50년 6월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약 15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조지아 주 포트 베닝에 위치한 미국 육군보병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⁸¹⁾ 위탁 교육을 마친 한국군 장교들은 대부분 한국군의 병과학교에서 교관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배운 선진 교리를 한국군에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비록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위탁교육이 중단되었으나, KMAG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군의 교리 발전 및 장교단의 리더십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신하여 1950년 12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였다. KMAG의 판단대로라면, 미국 육군의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들이 장차 한국군 장교단 전체에서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었다.⁸²⁾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KMAG은 1951년 초에 한국군 장교들의 미국 위탁교육 제도를 부활하는데 실패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를 신뢰하고 책임져줄 후원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지웨이 사령관은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인정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결국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한 KMAG의 프로젝트를 살려 낸 사람 역시 밴 플리트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⁸³⁾

밴 플리트 사령관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은 KMAG은 즉시 미국 육군의 보병학교와 포병학교에 한국군 장교들의 위탁교육 문제를 문의하였다.⁸⁴⁾

81)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88-89.

82) Major General Reuben E. Jenkins,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 Chief of Staff, the US Army, and Secretary of the Army, "ROKA Replacement Training and School Command Brochure," 2 October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s, 1951-52, Box 742, NA.

83) Braim, *The Will to Win*, 273.

84) Ibid.: Brigade General Champeny, Chief Advisor to the KATC, traveled to these two schools in July 1951. Champeny to Van Fleet, "Agreements Relative to Groups of Koreans Going to the United States For Attendance at Service Schools," 24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보병학교에서는 약 150명 정도의 한국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20주 동안 진행될 특별 교육반을 편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고, 포병학교에서는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반을 준비하겠다고 응신해왔다.

<표 3> 한국군 장교 미국 병과학교 위탁교육 현황⁸⁵⁾

병과학교	1952년(입교)	1953년(할당)	1954년(할당)
보병학교	317*	351*	398*
포병학교	214*	248*	347*
공병학교	6	89*	108*
의무학교	4	64	8
위생병 양성과정	0	0	22
통신학교	11	12	20
정비학교	13	0	12
병참학교	4	12	12
기갑학교	14	14	17
헌병학교	2	8	10
항공엔진 정비과정	0	0	10
항공학교	0	0	5
정보학교	0	0	2
경리학교	0	2	4
수송학교	1	2	4
부관학교	6	4	6
지휘참모대학	2	6	15
화학학교	0	10	7
심리전학교	0	0	1
Public Information	0	1	5
직무교육	0	6	6
총 계	594	829	1,019

* 통역관 포함

85)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Chapter 3, Figure 15.

그 결과 1951년 9월 10일 통역관 20여명과 KMAG 장교 2명을 포함한 약 270여명의 한국 육군 장교단이 미국 육군의 중추 교육기관인 보병학교(Fort Benning)와 포병학교(Fort Shill)에 입교하기 위하여 부산항을 출발하였다.⁸⁶⁾

KMAG은 미국 육군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한국군 장교의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육군성에 보병학교와 포병학교에 한국군 장교단을 위한 특별반을 설치의 정례화를 요청하였다. 육군성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1952년 3월에 KMAG의 요청을 수용하여 보병학교에 150명, 포병학교에 1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한국군 장교단 특별반 설치를 인가하였다. 또한 육군성은 한국군 장교단에 대한 위탁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다음해인 1953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⁸⁷⁾ 그 결과 1952년 4월에 한국군 장교들이 입교한 미국 육군의 군사교육 기관은 무려 20여개에 달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8군 사령부의 기록에 의하면 1952년에 미국 육군의 군사교육기관에서 특별반 훈련을 받은 한국군 장교단은 무려 594명이었으며, 대부분 보병학교와 포병학교가 주를 이뤘다. 이듬해인 1953년에는 829명이 같은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1954년에는 그 숫자가 1,019명으로 증가하였다.⁸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군 장교단의 미국 육군 위탁교육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는 매년 1,000명을 훨씬 넘는 장교들이 미국 육군의 군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한국전쟁 중에 미국 육군 군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한국군 장교들에 대한 위탁교육은 이 시기에 한국군이 미군의 선진적인 교리와 조직, 문화를

86)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74.

87)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74-77; Champeny to Van Fleet, "Agreements Relative to Groups of Koreans Going to the United States For Attendance at Service Schools," 24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88)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74-77.

배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KMAG은 한국군 장교들에 대한 미국 위탁교육이 소요되는 비용이 아깝지 않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 장교단의 미국 위탁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추진하던 한 KMAG 참모장교는 이 프로그램이 "짧은 시간 안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였다.⁸⁹⁾ 1952년 초부터 KMAG 단장으로 재직한 라이언(C. E. Ryan) 준장은 미국 위탁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군 장교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군 교육훈련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일종의 '연쇄작용(a chain reaction)'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⁹⁰⁾

사실 한국군 장교들에 대한 미국 위탁교육은 한국군에 미친 영향은 KMAG 단장의 평가보다 훨씬 크고 중요했다. 미국 위탁교육을 위해 선발하는 과정부터 우수한 한국군 장교들이 경쟁하였으며, 선발된 장교들은 개인 스스로가 국가와 육군 전체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위탁교육에 임했다. 이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특히 세계 최강 미군의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받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51년 9월과 1952년 3월에 미국 육군 포병학교의 고등 교육반에 참가한 한국군 포병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반이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고 있던 미군 장교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은 것이다.⁹¹⁾

89) KMAG G-3, General Reference Files, no date, quote from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80.

90)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80; Brigade General C. E. Ryan, Chief, KMAG, to Chief of Staff, ROK Army, "Subject: Korean Army Attendance at US Service Schools," 3 November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48-53, Box 33, NA.

91) Major General Reuben E. Jenkins,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and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Army Students Attending the Artillery and Infantry Schools," 21 November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s, 1951-52, Box 742, NA.

벤 플리트 사령관이 추진한 한국군 재편성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군의 전문 장교단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업은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의 재편성하는 작업이었다. 이 두 학교는 한국군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학교들은 벤 플리트와 KMAG의 지도 아래 꾸준히 추진되던 한국군 재편성과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육군사관학교의 확대와 발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8군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과 리지웨이 장군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워커와 리지웨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외면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쟁 제1년 차의 한국군은 전선 격동기에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사관학교와 같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교육기관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선이 소강된 틈을 타서 한국군 재편성에 착수한 벤 플리트는 이승만 대통령과 다수의 한국군 지휘관들이 요구하는 육군사관학교 부활 및 재편성이 장차 한국군 장교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안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벤 플리트 사령관은 1951년 10월에 이종찬 참모총장이 건의한 대로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모델로 한국에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설립을 승인하였다.⁹²⁾ 이후 KMAG은 곧바로 진해에 육군사관학교를 만들기 위한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KMAG 소속의 장교들 중에서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선발하여 이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⁹³⁾ 뿐만 아니라 벤 플리트 사령관은 신설된 한국군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안춘생 준장이 1951년 말에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하였다. 안춘생 초대교장은 웨

스트포인트 방문 직후에 벤 플리트 사령관에게 쓴 편지에서, 미국 육사에 서 본 모든 것에 “압도되었다(overwhelmed)”라고 그 소감을 밝혔다.⁹⁴⁾

KMAG의 의도대로 육군사관학교는 교육제도와 내용까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미국 육사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한국 육사의 임무(mission)가 웨스트포인트와 동일하게, “한국 육군의 중추가 될 인격, 리더십, 덕성을 갖춘 전문 직업적 초급장교 육성”으로 설정되었다.⁹⁵⁾ 1952년 1월 20일에 육군사관학교의 개교식에 참석한 이종찬 참모총장은 미국 육군 참모총장에게 쓴 서한에서, “오늘 개교한 한국군의 육군사관학교는 모든 한국 국민의 희망입니다. 저는 한국군의 육군사관학교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처럼 영광스럽고 존경받을만한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밝혔다.⁹⁶⁾

한국의 대통령,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다수의 육군 지휘관들이 육군사관학교의 부활과 개교를 간절하게 원했다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지휘관들은 육군대학의 창설과 부활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특히 벤 플리트 사령관과 KMAG은 진행 중이던 한국군의 재편성 프로그램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파악된 한국군 중견 및 고급장교들에 대한 리더십 회복 훈련이 필요함을 직감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시스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군 육군대학이 1951년 말에 개교하였는데, 이 학교에는 미국 육군의 지휘참모대학(the U. 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at Fort Leavenworth)과 유사한 임무가 부여되었다.⁹⁷⁾ 한국군 학교 교육 시스템

92) Barim, *The Will to Win*, 273-74.

93) “Plan for Korean Military Academy,”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25 November 1951, RG 338,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Files, Box 85, NA.

94) Ahn Chun-sang to Van Fleet, 4 July 1952, Van Fleet Papers, Box 72.

95) “Korean Military Academy,”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96) Lt. General Lee Chongchan, Chief of Staff, ROK Army, to General J. Lawton Collins, Chief of Staff, U.S. Army, 5 February 1952, RG 319, Army Intelligence Project Decimal Files, 1951-52, Box 164, NA.

중에서 최고 교육기관인 육군대학은 “한국군에 현대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 및 참모장교를 육성하여 배출” 하는 것이었다.⁹⁸⁾ 육군대학의 개교식에 참석한 벤 플리트 사령관은 축사(祝辭)를 통해서, “육군대학의 개교야 말로 한국군이 홀로서기를 시작했음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거대한 첫 걸음”이라고 그 중요성을 평가하였다.⁹⁹⁾

한국군 육군대학에서의 교육은 미국 육군의 지휘참모대학에서와 같이 약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개교 초기에는 미국 육군 지휘참모대학을 졸업한 미국군 장교들이 교관으로 선발되어 대부대 전술과 같은 중요 과목들을 영어로 강의하였고, 이때 통역관들이 배치되어 강의를 통역하여 전달하였다.¹⁰⁰⁾ 미군 교관 외에도 한국군 장교들도 육군대학의 교관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복귀한 장교들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관의 수요가 증가하자 매 기수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장교 중 10명씩을 교관요원으로 충원하기도 하였다. 제1기로 입교한 한국군 장교들의 영어 청취 및 읽기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한 육군대학에서는 1952년 1월부터는 매일 1시간 이상씩 영어 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교육하기도 하였다.¹⁰¹⁾ 1952년 7월에 입교한 제2기 학생장교들부터 매 기수별로 50명씩을 선발하여 교육시켰는데, 이 숫자는 당시 전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KMAG과 육군본부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¹⁰²⁾

97)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205.

98)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99) Van Fleet, Press Release, 16 December 1951, quote from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205.

100) “ROK Army Students Add Knowledge - KMAG School Important Link,” 4 May 1952, Van Fleet Papers, Box S-24.

101) Chief KMAG to Superintendent,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no date: G-4 to G-3, KMAG, “ROKA Military School Facilities,” 17 September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48-53, Box 33, NA.

102)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205-6.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의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은 기존의 한국군 학교 교육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벤 플리트 사령관의 지도 아래 추진되고 있던 전시 한국군 재편성의 방향과 척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 특히 새로운 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이들 학교에서 세계 최강 미국 육군의 교리와 전술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한국군에 적용함으로써, 한국군은 점차 현대전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주적,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 한국군에 소개된 다양한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이나 핵-방사선전(Nuclear-Biological Warfare)과 같은 선진 교리들을 통해 한국군 장교들은 현대전쟁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¹⁰³⁾ 새롭게 배운 선진교리들을 직접 전장에 적용함으로써 한층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¹⁰⁴⁾ 또한 한국군이 점차 미군으로부터 선진 교리를 수용하면서 현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춰감에 따라, 이에 걸 맞는 한국군 행정 시스템이 발달되었던 것도 벤 플리트 사령관의 주도하에 진행된 한국군 재편성의 중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군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벤 플리트 사령관은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그는 한국군의 학교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1952년 1월에 육군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여 한국군의 모든 교육 훈련을 담당케 하였다. 또한 벤 플리트는 미국 각 군단 예하에 야전 훈련소(FTC)를 개소하여, 각 부대별 보충훈련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화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병 및 기갑 전력을 증강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의 체질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한국군

103)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raining,”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104) HQ, the Eighth U.S. Army, Commanding Reports, March 1952, RG 550,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History Files, Box 71, NA.

장교들을 선발하여 미국 군사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시키는 위탁교육이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만 1,019명이 참가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국군 장교들은 세계 최강 미국 육군의 선진 교육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들이 배운 선진 교리가 한국군의 재편성 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벤 플리트 장군이 주도하였던 전투력 향상 프로그램은 한국군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현대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한국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대군대(現代軍隊)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 전시 한국군 증강(Making a Bigger Army)

1952년 5월에 리지웨이 대장이 NATO군 사령관으로 옮겨간 후, 신임 유엔군 사령관에 취임한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은 벤 플리트 사령관이 추진하고 있던 한국군 재편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제안하였다. 그것은 한국 육군의 규모를 증강하려는 계획이었다. 클라크 신임 유엔군 사령관은 장차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미군이나 유엔군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산군을 상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벤 플리트가 주관하였던 한국군 재편성 작업이 한국군이 현대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과 교리를 습득하여 군대다운 틀을 갖추는 기초 작업이었다면, 클라크 장군이 추진한 한국군 증강 정책은 전 세계적 냉전 체제 속에서 한국군의 군사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군 증강에 대한 클라크 장군의 기본적인 구상은 한국군을 최대 20개 사단, 700,000명 수준으로 증강시켜 편성하고, 증강이 완성되는 즉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을 다른 전선으로 옮길 수 있다

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클라크 장군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2년차에 접어든 전쟁이 1951년 7월 이후 진행된 휴전회담에 의해 대체로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벤 플리트 장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던 한국군 재편성이 점차 가시적인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주한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군의 양적 팽창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한국군의 규모를 제한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중공군의 공격이 거세던 1951년 초에 이승만 대통령은 수세에 몰린 유엔군 전선의 유일한 희망이 한국군을 50만명 수준까지 증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을 증강시키면 주한 미군에 대한 증강이 필요 없거나 혹은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해도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던 미군의 고위 지휘관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일축하였는데, 왜냐하면 전투 효율성의 증강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한 군대의 증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군대규모는 고작해야 10개 사단 정도라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이 10개 사단 이상으로 증강할 경우 한국군에 대한 모든 지원과 책임을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주한 미군 지휘관들이 한국군의 증강에 소극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군의 증강보다는 일본 자위대의 재편성, 대만의 국민군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대에 대한 지원 등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파악하였던 것이다.¹⁰⁵⁾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리지웨이 사령관은 1952년 초에 한

105) Collins, *War in Peacetime*, 314; Hull to Ridgway, 8 April 1952; Ridgway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9 April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Top Secret Correspondence, 1948-62, Box 5, NA.

국 정부와 밴 플리트의 끈질긴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한국군의 최대 규모(ceiling)를 252,000명에서 383,000명으로 증강하는 계획에 동의하였으나, 더 이상의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 증강을 제한시켰다. 따라서 한국군 상비사단의 숫자는 10개로 제한되었으며, 횡적 팽창을 통한 증강 자체가 제한되었다.¹⁰⁶⁾

하지만 클라크 사령관은 냉전적 관점에서 한국군을 20개 사단 규모로 증강시키는 것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클라크 신임 사령관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밴 플리트 8군 사령관의 지휘 아래 추진되고 있던 한국군의 재편성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군 병사들 개개인의 전투 능력과 한국군 부대들의 전투 효율성에 깊게 감명 받았다”고 밝히며, “한국군의 장래가 매우 밝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시기에 한국군의 증강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¹⁰⁷⁾ 또한 그는 한국군의 증강으로 인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전투손실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장차작전에서도 한국군이 최전선의 대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일선에서 물러난 미군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군사작전을 구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한국군 증강을 통해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한국전선을 담당할 수 있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냉전의 다른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06) Ridgway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9 April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Top Secret Correspondence, 1948-62, Box 5, NA: Major General R. E. Duff, Deputy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 Chief of Staff, U.S. Army, “To Determine What Can be Done Now to Make Better Use of Korean Manpower,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5 July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s, 1951-52, Box 742, NA.

107) Clark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23 June 1952,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40, NA.

한국군의 증강을 통해 미국 병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는 클라크 장군의 의도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951년 초의 맥아더 청문회와 같은 해 7월부터 시작된 휴전 회담으로 인해서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전쟁에 대한 염증과 걱정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시된 클라크 사령관의 한국군 증강 주장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¹⁰⁸⁾

그러나 클라크 사령관이 한국군 증강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군을 20개 사단 규모로 증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제한된 미국 육군의 예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군에 대한 증강은 곧 유럽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 사용할 예산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특히 트루먼 행정부 내의 유럽우선론자(Europeanist)들은 유럽에 책정된 군사예산을 냉전의 부차적인 전선으로 간주하던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미국의 군사 예산의 부족과 적자로 인해서 클라크 사령관이 제안한 한국군 증강 문제는 미국 정부가 특별 예산을 할당하지 않는 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한편 클라크 사령관이 추진하는 한국군 증강을 가로막았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과연 한국군에 대한 증강과 투자가 미국의 냉전 정책으로 추진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의 증강이 미국의 전 세계적 군사정책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인가를 입증해야 하는 것과, 한국군이 장차 그러한 가치를 갖는 군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했다. 밴 플리트와 일부 KMAG 소속의 장교들은 한국군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전쟁 제1년차에 한국군이 비참하게 패퇴하였던 모습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미

108) Eugene M. Lyons, *Military Policy and Economic Aid: The Korean Case, 1950-1953*(Columbus, Ohio: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61), 168.

국 군사 지휘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한국군에 대한 투자가 과연 클라크가 주장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¹⁰⁹⁾

이와 같은 반대와 의심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사령관은 1952년 6월부터 한국군 증강 계획을 추진하였다. 한국군의 증강이 시작되자 약 1년 전부터 한국군의 재편성을 주도하고 있던 밴 플리트와 KMAG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으며, 한국 정부 역시 한국군 증강에 필요한 법률 개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KMAG은 한국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한국군 증강의 주축을 이룰 800~1,100여명 정도의 건강한 청년들을 매일 충원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세 곳의 육군 훈련소를 통해서 매주 약 7,200여명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 시기에 동원된 병력들이 바로 장차 대규모 한국군의 중추가 되었음은 당연한 것이다.¹¹⁰⁾ 한편, 주한 미군 각 군단 예하에 하나씩 설치되어 한국군 기존 사단급 부대의 훈련을 담당하던 야외 훈련소(FTC)를 1952년부터 창설부대 훈련소(Unit Training Center)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는데, 새롭게 변경된 기구에서도 주한 미군의 각 군단들이 새롭게 창설된 한국군 사단급 부대에 대한 창설부대 훈련을 담당하였다.¹¹¹⁾

클라크 사령관의 확고한 의지와 밴 플리트 및 한국인들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전시 한국군 증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새롭게 편성된 한국군 사단급 부대들을 조직하고 훈련시킨 후 직접 전선에 데리고 나가서 싸우도록 격려할 능력을 갖춘 미군 장교와 부사관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KMAG 뿐만 아니라, 미 제8군 사령부, 동경의 극동군 사령부도 예외는 아니었

109) Major General Frank E. Lowe to Truman, 15 December 1950, 20 January 1951, 14 February 1951, Frank E. Lowe Papers, USAMHI.

110)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60: "Supplement to Information Folder" in *Republic of Korea Army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111)

다.¹¹²⁾ 둘째, 육군성 내부의 반대가 점차 강화되었다. 육군성 관계자들은 미군의 전세계적 군사정책 관점에서 한국군에게 미군의 병참 및 전투물자를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파견된 미군은 물론이고, 한국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제3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약된다는 것을 비난하였다. 왜냐하면 뚜렷한 군사 예산의 증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에 대해 갑작스런 지원을 증가하는 것은 미군 전체의 보급 및 전투지원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때까지 한국군 증강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사령관은 1952년 10월 초에 자신의 복안대로 한국군 증강계획을 육군성에 제출하였다. 기본적으로 클라크 사령관은 향후 2년 이내에 한국군에 10개 사단을 증강하고, 그 대신 유엔군을 점차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¹¹⁴⁾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의 증강이 클라크 사령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미군은 최대 군단 2개, 사단 5개, 그리고 전투근무지원 부대의 일부를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클라크 사령관의 계획이 완성되는 1954년 7월 1일 이후에는 한국에 잔류하는 주한 미군이 1951년의 30% 수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한국군의 증강이 완료되어 한국군이 한국전선 전체를 책임지고 담당하기 전까지, 미국은 약 4개 사단 정도의 부대를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12)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46-47.

113) Colonel G. O. N. Lodoen, Chief, Plans Office, Office of Assistant Chief of Staff, G-4, to Assistant Chief of Staff, G-3, "Subject: Post Hostilities ROK Army," 14 July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General Decimal File, 1952, Box 125, NA.

114) Major General C. D. Eddleman to Chief of Staff, the U.S. Army, "Proposed Two-Year Program for the Augmentation of the ROKA to Reduc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3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Top Secret Correspondence, 1948-62, Box 5, NA.

<표 4> 한국군 10개 사단 추가 증강 계획¹¹⁵⁾

일 시	창설 사단	총 가용 사단	미군-유엔군 철수부대
1952. 11. 15	1	10	
1952. 12. 15	1		
1953. 1. 1	1		
1953. 1. 17		11	
1953. 1. 26	1		
1953. 3. 7	1	12	1개 사단, 8군 예비로 전환
1953. 4. 4	1		
1953. 4. 19		13	
1953. 5. 2	1		
1953. 5. 9			1개 사단, 한국에서 철수
1953. 5. 17		14	
1953. 5. 30	1		
1953. 6. 27		15	
1953. 7. 12	1		
1953. 7. 17			사단 1개를 포함한 군단(-), 한국에서 철수
1953. 7. 25		16	
1953. 7. 31		17	극동사령부 예하 병력을 40,000명 수준으로 축소
1953. 8. 19	1	18	
1953. 10. 31			
1953. 11. 1		19	
1953. 12. 9		20	
1953. 12. 16			1개 사단, 한국에서 철수
1954. 6. 30			사단 1개를 포함한 군단(-), 한국에서 철수

* 1954년 6월 30일까지 주한 미군의 군단 2개, 사단 4개, 기타 부대가 한국에서 철수할 예정

* 1954년 6월 30일 이후에도 군단 2개, 사단 4개, 기타 부대의 추가 철수 준비

115)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Joint Chiefs of Staff - Subject: Replacement of U.S. Forces by Republic of Korea Army (ROKA) forces," no date,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ce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16, NA.

현실적으로 클라크 장군이 제출한 한국군 증강 계획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무리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전투 물자를 일시에 한국전선에 투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성에서는 클라크의 계획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증강이 향후 미국의 냉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¹¹⁶⁾ 미국의 군사정책 결정자들은 또한 한국군에 새로운 부대를 창설함에 따라 점차 전선의 최일선 부대들이 한국군으로 바뀌면서 미군의 사상자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고무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한국군의 증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1954년 초에는 미 제8군이 전체적으로 병력 활용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병력의 여유는 곧 전 세계적 냉전 전선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¹¹⁷⁾ 그 결과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성에서는 클라크 장군이 제안한 한국군 증강의 제1단계인 12개 사단 증강 계획을 아무런 반대 없이 승인하였으며, 1952년 9월까지 한국군은 약 463,000명으로 증강하였다.¹¹⁸⁾ 하지만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성에서는 클라크 장군이 계획한대로 한국군을 12개 사단 이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트루먼 대통령의 직접적인 승인과 지원이 필요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군 증강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1952년 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불거져 나왔다. 사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변수는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에 열중하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후보가 1952년 10월

116) JCS to Clark, 30 October 1952,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41, NA.

117) J. E. Welch and B. R. Eggeman, "Joint Chiefs of Staff Decision on J.C.S. 1776/317 - A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on Augmentation of Wartime Republic of Korea Army and Marine Corps," 26 Sept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118) JCS 1776/328, 27 October 1952; JCS 1776/332, 31 October 1952; JCS to Clark, 30 October 1952,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41, NA.

29일에 행한 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군 증강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이젠하워는 또한 한국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 비판하며,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싸우지 말고 한국인들을 포함한 현지인들이 공산군과 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⁹⁾ 특히 이 문제는 아이젠하워 후보가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증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등 트루먼 행정부의 소극적인 한국정책을 비난한 벤 플리트의 개인 서신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극에 달했다.¹²⁰⁾ 결국 이를 계기로 한국군 증강 문제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으며, 그 결과 트루먼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불과 이틀 후인 10월 31일에 트루먼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가 요청한 대로 한국군을 14개 사단규모로 증강하는 안을 그대로 승인하였다.¹²¹⁾

그 결과 한국군 14개 사단 증강계획안이 통과된 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성이 한국군 증강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육군성 관계자들은 먼저 유엔군 사령부에 장차 미군의 사상자 비율을 낮추고 또한 미군 부대들의 전선 투입을 현저하게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한국군 증강 수준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클라크 사령관에게는 1953년 말까지 약 50,000여명을 제외한 모든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1954년 말에는 한반도 방어 전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기 위해서 한국군을 어느 정도까지 증강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다.¹²²⁾

119) "Background on Korea Issue Enlivening Presidential Race," *The New York Times* 31 October 1952: "Lovett Denies Van Fleet's Charge of Delay in Training Korean Troops,"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S-24.

120) Ibid.

121) DA to CINCFE, 31 October 1952, quote from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62.

122) Major General C. E. Eddleman, Assistant Chief of Staff, G-3, "Proposed Two-Year Program for the Augmentation of the ROKA to Reduc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3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아이젠하워 후보의 정치적 공세가 있는 후,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성에서 한국군 증강 문제가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파악한 클라크 사령관은 한국군 증강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육군성이 요구하는 한국군 증강을 위한 최종 계획을 제출하면서, 한국군의 증강에 따른 미군 부대의 한반도 철수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당시 진행 중이던 한국전쟁의 소강상태가 한국군 증강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과, 미국이 한국군의 증강에 필요한 충분한 전투 장비와 물자를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¹²³⁾ 또한 향후 18개월 이내에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라고 지시한 육군성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며 현지의 상황을 무시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계획이라고 일축하였다. 따라서 클라크 장군은 자신이 제안한 한국군 20개 사단 계획이 국방부와 육군성에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²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단 대통령에 선출된 아이젠하워 신임 대통령이 한국군 증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하자, 이에 따라 한국군 증강 계획에 적극적이던 합동참모본부, 육군성, 국방부 모두 클라크 장군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였던 점이다.¹²⁵⁾ 한국군 증강을 둘러싼 미국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표방한 소

123) Clark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28 October 1952,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41, NA.

124) Major General C. E. Eddleman, Assistant Chief of Staff, G-3, "Proposed Two-Year Program for the Augmentation of the ROKA to Reduc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3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125) Omar N. Bradley, "Memorandum for General Collins," 19 November 1952; JCS to General Eisenhower, 3 December 1952; Frank Pace, Jr., Secretary of the Army, "Memorandum for Secretary of Defense - Subject: Further Expansion of Republic of Korea Military Forces," 17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위 'New Look'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예산의 감소와 가용 예산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획된 대로 한국군을 20개 사단 규모로 증강하는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NATO와 동남아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던 모든 군사정책을 중단하거나 지연해야 했기 때문이다.¹²⁶⁾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부 군사정책 결정자들은 한국 정부의 경제 능력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을 무리하게 증강하는 것은 중국에는 미국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²⁷⁾ 이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에 제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군에 대한 증강이 완료되는 첫 해만 하더라도 부대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만 약 2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부대 유지에 필요한 예산까지 합하면 한국군에 총 30억 달러가 소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²⁸⁾

육군성과 국방부에서 한국군 증강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던 와중에, 한국전쟁의 휴전 논의가 막바지에 도달한 1953년 5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군을 20개 사단, 655,000명 규모로 증강시키는 최종안을 승인하였다.¹²⁹⁾ 사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 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증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당시 휴전의 성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던 한국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기

126) Omar N. Bradley, "Memorandum for General Collins," 19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127) Robert A. Lovett, Secretary of Defense, "Memorandum for the Joint Chief of Staff - Subject: Further Expansion of the ROK Army Forces,"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128) Ibid.

129) Chief of Staff, U.S. Army to Clark, 14 May 1953; Clark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for JCS, 10 June 1953, RG 218, Geographic Files, 1954-56, Box 44, NA.

위한 카드로 한국군 증강 문제를 선택하였던 것이다.¹³⁰⁾

한국군 증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 내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었으나, 실제 한국에서 진행된 한국군 증강은 클라크 장군이 계획했던 것 보다 더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국군의 열한 번째 사단인 제12사단은 미국 정부가 약속한 전투 장비와 물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설되어, 창설부대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난 후 1952년 12월에 처음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열두 번째인 제15사단도 제12사단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1953년 1월에 전선에 투입되었다.¹³¹⁾ 이상의 두 개 사단에 대한 증강이 완료되자, 이후에 창설을 시작한 신설 사단들에 대한 증강 작업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클라크 장군이 주도하는 한국군 증강 정책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다. 대외적으로 한국군의 증강을 열성적으로 주장해왔던 이승만 대통령도 이 시기에는 대체로 자제하면서 관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클라크 장군이 주도하는 계획을 자신이 나서서 미국의 언론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승만 대통령은 알렉산더 스미스(H. Alexander Smith) 상원의원 등 미국 내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름도 없는 한국의 낙선 전선에서 죽고 다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지원해 달라는 것과 우리 국민들을 훈련시켜달라는 것뿐이다. 우리 땅의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직접 물리치게 해 달라"¹³²⁾고 강조하는 등 한

130) Clark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for JCS, 13 May 1953, RG 218, Geographic Files, 1954-56, Box 44, NA.

131)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66.

132) Syngmen Rhee to Senator H. Alexander Smith, no date, quote from David Curtis Skaggs and Richard P. Weinert,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51-1967* Draft Manuscript, p. II-1, RG 319, Military

국군 증강 정책에 대한 측면 지원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한국군 증강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952년 5월까지 병역법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클라크 사령관의 한국군 증강 계획을 직접 수행하는 K MAG과의 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클라크 장군이 주도한 한국군 증강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受惠者)들은 한국군 장교단이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장교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보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장교들에게 조기 진급의 기회가 보장 및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52년 중반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0개월 미만이었다.¹³³⁾ 또한 군대에 장기간 복무할 수 있게 되어 점차 전문 직업군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신편 부대에 배치된 한국군 장교들은 평시와 전시 등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우 다양한 사례와 상황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이들이 장차 전문 직업군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¹³⁴⁾

돌이켜 보건데, 1952년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군의 증강 정책의 출발점은 1951년 7월 이후 밴 플리트 장군이 주도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된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 프로그램이었다. 1951년 7월 시작된 한국전쟁에서의 휴전 논의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전쟁의 종결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곧 미국 지상군의 한국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Historian's Office, Unpublished Manuscript, "K MAG in Peace and War," Box 1, NA.

133) 이병형 소령의 경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에 걸린 기간은 고작 5개월이었다. 이병형, 『연대장』(서울: 병학사, 1997), 11-12.

134) 1952년 11월에 신편 제58연대장으로 임명된 김인철 대령은 불과 2주 만에 연대 구성을 완료하였고, 이후 미 제10군단의 지휘 아래 약 4주간의 창설부대 훈련을 마쳤다. 그 후 제58연대는 신편 20사단에 소속되어 창설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전선에 투입되어 첫 전투를 경험하였다. 김인철, 『6·25전쟁 회고록: 38선에서 휴전선까지』(서울: 보문당, 1992), 376.

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증강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밴 플리트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였다. 즉, 전투력이 향상된 한국군을 적정 수준으로 증강시킨 이후 전선(戰線) 전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증강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 예산, 인원 등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강군(強軍)을 갖고자 열망하는 한국정부의 희망이 조화된 한국군 증강은 성공을 거뒀고, 그 결과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이 성립될 당시 한국군은 명실 공히 20개 정규 사단 규모의 '믿음직한 군대(a reliable military)'¹³⁵⁾로 거듭날 수 있었다.

5. 맺 음 말

1951년 6월 이후 밴 플리트 8군 사령관의 주도 아래 실시된 한국군 재편성 과정을 분석한 본 논문은 한국군이 이 시기의 성공적인 재편성을 통해 전쟁 제1년차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전투 효율성 혹은 전투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성공적인 재편성은 1952년 5월부터 유엔군 사령부의 주도로 시작된 한국군 증강 프로그램의 밑거름이 되어, 한국군은 1953년 말까지 무려 50만의 대군으로 증강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특히 한국군이 전쟁 중에 진행된 재편성과 증강 과정을 통해서 전쟁 제1년차까지도 상당부분 남아있던 일본군과 중국군의 흔적을 버리고, 대신 선진 미국 육군의 제도, 교리, 전술, 문화 등을

135) Ridgway, Interview Manuscript, "Troop Leadership At The Operational Level: The Eighth Army In Korea," by General Walker Fl Winton, Jr., p. 2, Clay and Joan Blair Collection, Box 62, USAMHI.

습득함으로써 전혀 다른 모습의 군대로 발전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53년 이후의 한국군은 규모와 장비 등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쟁수행 방식(a way of fight)에서도 전쟁 발발 이전의 한국군과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벤 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이 주도한 한국군 재편성 프로그램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주도한 한국군 증강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전쟁 제1년차에 겪었던 시련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쌓게 되었다. 그 결과 재편성의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군은 스스로 자신감을 배양함은 물론, 이후 전장에서 증강된 전투 효율성을 바탕으로 적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었다. 또한 한국군의 성공적인 재편성의 효과를 더욱 확대시킨 클라크 사령관의 한국군 증강 정책의 성공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의 휴전이 체결되던 시기의 한국군은 전쟁 발발 이전의 한국군과는 성격, 규모, 수준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는 새로운 한국군(a new ROK Army)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이 종결되기 이전에도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들을 통해서 벤 플리트와 클라크 사령관의 업적을 가름할 수 있었으나, 이 시기에 한국군에 투자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들은 이후 10년 혹은 20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7. 3. 27, 심사완료일 : 2007. 6. 8)

주제어 : 한국전쟁, 한국 육군, 제임스 벤 플리트, 마크 클라크, 재편성과 증강

<ABSTRACT>

The Re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during the Korean War, 1951-53

Na, Jong-nam

This study deals with the reorganiz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y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during the second and the third year of the war. The reorganization of the ROK Army began in earnest in the summer of 1951 in what proved the start of a sustained campaign of Americanization. This project transformed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a seriously broken the ROK Armed Forces over the next two years. After the success of General James A. Van Fleet's project to increase the ROK Army's combat effectiveness, General Mark W. Clark's expansion program, which intended to increase the ROK Army's size up to 700,000-men and twenty divisions was also significant in transforming the ROK Army into a reliable Cold War military. Despite many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both Koreans and Americans were finally ready to cooperate towards the same goal.

General Van Fleet, the commander of the 8th US Army in Korea, directed the first phase of this sustained, serious effort at Americanization. He provided the main blueprint for this project, focusing on both increasing the ROK Army's combat effectiveness and founding a basis of professional military. With the Koreans'wholehearted support, he was able to transform this Asian military into a first-class force in the next two years. General Clark,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built on Van Fleet's

achievements by expanding the ROK Army to twenty divisions, while pulling US ground forces out from Korea.

The success of two timely and effective Americanization projects had increased the ROK Army's combat effectiveness and expanded its size. The ROK Army had become a reliable military as many observer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ROK Army recognized as early as summer 1952. In particular battles against the Communists, the ROK Army units were proving the value of what they learned and achieved under the US Army's direction.

The success of the ROK Army's Americanization project had two instant consequences for Americans and Koreans. First of all, as US policy makers expected, major US ground forces were able to withdraw from the ROK, leaving the Cold War mission to the ROK Army. By economizing US military forces on the Asian front, the US was able to improve its Cold War manpower situation. Koreans also benefited by achieving their old aspirations. Because of this strong military forces, South Koreans could preserve their national pride and security through their own efforts.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Army, James A. Van Fleet, Mark W. Clark, Reorganization and Expansion